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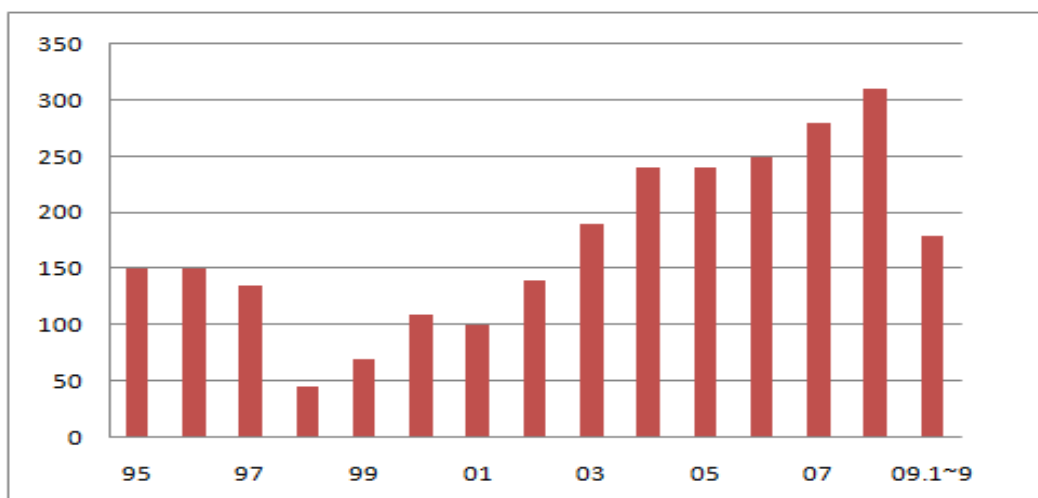
##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

한일간 무역에 있어 무역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. 이에 대한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을 정부기관의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확인해 본다.

### □ 현황 및 실태

- 무역 규모 확대에 비례하여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
  - 한국의 경기 확대 및 설비투자 증대, 對 세계 수출이 급증할 시기에는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로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, 자본재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대일 무역역조 확대
- \* 2002년 이후 대일 적자의 확대가 주로 기계류, 화학제품, 철강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우리의 수출 증가로 일본으로부터 관련 중간재 수입 급등에 기인

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추이 (단위: 억불)



출처: 한국무역협회

- 대일 역조 시정을 위한 전략적 부품소재 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
  - (수출) 일본 내수침체 장기화로 △23.2% 감소한 217억불 전망
  - (수입) 엔고 지속으로 큰 폭의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차츰 부품소재 수입수요 증가로 △23.4% 감소한 467억불 전망
- \*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 전망 : ( '08년) △209억불 → ( '09년) △170억불

### 2009년 대일 무역수지 전망

(단위 : 억불, %)

구 분	2008년	2009년				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
수출(증가율)	283(7.1)	47(△32.6)	54(△29.1)	57(△19.9)	59(△12.5)	217(△23.2)
수입(증가율)	610(8.4)	106(△31.2)	120(△26.5)	122(△25.3)	119(△7.6)	467(△23.4)
무역수지	△327	△59	△66	△65	△60	△250

### □ 구조적 걸림돌 <수출>

- 대일 역조 문제는 특정 부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적 문제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
  - 한일 양국은 자동차, IT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한국 상품의 일본시장 수출 확대가 어려움
- \* 승용차·전자제품, 부품소재 등 고가품의 경우 일본제품에 비해 기술력·브랜드 파워 등이 부족
- 일본시장은 유통구조가 복잡, 폐쇄적이고, 일본 소비자의 Premium Japan 인식으로 우리 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불리
  - 유럽, 미국 등 국제규격보다 일본 자체 규격, 적합성검사를 요구하

는 경우가 많아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

- \* 일본인의 75%가 “Made in Japan” 을 구매 조건의 하나로 고려(04.1, goo 리서치, 일본인 24,000명 대상조사)

## □ 구조적 걸림돌 <수입>

- 전체 대일 수입의 약 60%를 차지하는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및 공급량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이 근본 원인
- 부품소재 대일 수입의 80%를 차지하는 100개 품목(244억불) 조사 결과, 순수 기술격차에 의한 수입 품목은 67개(123.2억불)
- 완제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부품소재 역조가 심화되는 구조
- \* 요인별 비중( '02~ '08, %) : 해외수요(79.4), 수입단가(14.1), 국내수요(6.5)

⇒ 품목별 수입 원인에 맞는 정교한 대책 수립 필요

수입 사유	품목수	수입액(07)	비중(%)
원천·고도기술부족	67개	123.2억불	50.4
기술은 있으나 투자신뢰성 부족 및 국내시장협소 등	25개	103억불	42.2
경영전략 차원에서 일본에서의 수입선 유지	8개	18.2억불	7.4
합계	100개	244.4억불	100

출처: 지경부 품목담당관이 직접 현장방문 조사(08.9-09.3)

## □ 그동안의 정책 대응 평가

- 지난 10여년 간의 무역흑자 기조 속에서 대일역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약화
- 대일 수출 중 소비재 수출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 소홀

- \* 기술개발-인증-마케팅-수출보험보증 등 지원기관간 연계 지원체계 미흡
- \* 수출지원기관 및 업계 일본전담부서 폐지 등
- 그동안 단편적 제품별 전시회, 수출상담회 등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엔고·한류 등을 활용한 정교한 시장개척 전략 미약, 그러나 최근 日 최대 인터넷 쇼핑몰(라쿠텐) 입점 등 일부 성과 도출
- \* SBS프로덕션(영상물), 화천세렉스(골프연습기), 도농시대(에어줄) 등 총 89개 업체 159개 품목 입점·신청중이며 매일 평균 1개씩 입점(09.3월기준)
- 부품소재 분야에서 세부품목별 다양한 원인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R&D 자금 투입규모 확대에 치중
- \* 부품: 정책지원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적자규모가 60~90억불 수준에서 정채  
소재: 00년 47억불에서 08년 115억불로 2배 이상 증가
- \* 「부품소재 전용공단」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일본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나, 투자현실화에는 다소시일이 소요

## □ 개선 목표 (2009년)

- 정책 역량 집중으로 전년대비 100억불 무역수지 개선
- 중장기적으로 핵심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하여 12년까지 對日 수입 의존도 10% 이하로 축소
- \* ( '08) △327억불 → ( '09전망) △250억불 : ( '09목표) △227억불

## □ 정부의 전략

- 사상 최대 적자규모(08년 327억불)를 기록한 대일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일 무역수지를 전년대비 100억불 개선
- 중장기적으로 핵심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2012년까지 對日

수입의존도(전체 수입액중 일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)를 10% 이하로 축소해 나가기로 함

## □ 구체적 대책

- 소비재분야 단기 수출 확대를 위해, 대일수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선정·지원을 비롯, 일본 대형 유통망·인터넷 쇼핑몰 진출 지원 및 전문 전시회 ·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
  - 지식경제부 ‘대일수출 유망 100개 기업 지원 발대식’ 개최(09.5.6)
  - 무역협회, 수출보험공사, KOTRA,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대일수출 유망 100개 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함
- 부품소재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0개 전략품목 발굴, 대일시장 개척 지원, 일본 기업의 국내 부품소재 구매 확대 추진
  - 전시회 참가지원, 바이어 초청상담, 대일시장개척단 파견, 경영컨설팅 지원 등
- 대일 수입대체 효과가 큰 R&D과제 발굴·지원 및 신규과제 선정시 대일역조 개선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고, 공급량 부족으로 대일적자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기업의 투자 촉진 유도, 개발된 국산화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
-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부품소재 R&D 확대, 일본기업과의 M&A 촉진을 위한 ‘부품소재 M&A 펀드’ 조성, 미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

## <참고 문헌>

지식경제부 (<http://www.mke.go.kr/>)

한국무역협회 (<http://www.kita.net>)

산업연구원(2007), 최근 대일 역조 확대의 원인과 전망